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11. 18(수)】	담당부서	건설안전국 도시재생과			
		작성 자	과 장	장 상 열		
			팀 장	박선훈	주무관	최준웅
		연 락 처	054-437-7840			

경북혁신도시에 스마트물류 거점 육성한다

- 경상북도-한국도로공사-김천시, 스마트물류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 -
- 스마트물류 테스트베드·물류정보센터·지능형물류센터 단계적 구축 -

경상북도와 한국도로공사, 김천시는 18일 한국도로공사 회의실에서 스마트물류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북혁신도시 남부권에 스마트물류 거점도시 육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 김충섭 김천시장을 비롯한 송언석 국회의원, 이우청 김천시의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 참여기관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혁신도시를 거점으로 한 스마트 물류산업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 할 것을 합의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스마트물류 테스트베드와 물류정보센터, 지능형 물류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경북도와 김천시는 건립부지 및 행정적 지원을 약정했다.

스마트물류 사업은 올해 7월 정부의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국비지원 사업으로, 내년부터 2023년까지 121억원을 투입해 스마트물류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스마트물류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김천시의 입지적 장점과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풀필먼트* 물류센터를 구축해 물류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풀필먼트 : 고객 주문에 맞춰 물류센터에서 피킹,포장,배송까지의 전과정 처리

하대성 경제부지사는 “오늘 협약은 혁신도시가 지역의 성장 거점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앞으로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지방과 이전공공기관 주도의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며, 도에서는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힘쓰겠다” 고 밝혔다.

<사진 행사후 송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협업을 위한」 스마트물류사업 추진 업무협약(MOU) 체결

1 행사 개요

- 일 시 : 2020. 11. 18(수) 13:30 ~
- 장 소 : 한국도로공사 이사회의실(4층)
- 협약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 참석인원 : 20명 정도
 - 도 경제부지사, 김천시장, 도로공사 사장, 국회의원, 시의장 등
- 협약내용(지원사항 등)
 - 경북도·김천시 : 부지 제공, 건축비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
 - 한국도로공사 : 물류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및 관리·운영

※ 연계협업사업

- 사업기간 : 2021 ~ 2023년(3년간)
- 사업위치 : 김천산업단지내(혁신도시에서 7Km)
- 총사업비 : 121억원(국비 45, 한국도로공사 76)
- 사업내용 : 스마트물류 테스트베드 구축(55억원), 스마트물류센터 구축(66억원)

2 시간 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3:00~13:10	10	▶ 이동【식당 → 한국도로공사】	
13:10~13:30	20	▶ 인사 및 환담	환담장(4층)
13:30~13:40	10	▶ 협약식 개최 및 참석자 소개	이사회의실 (4층)
13:40~13:45	5	▶ 사업경과 보고	
13:45~13:55	10	▶ 인사말씀【국회의원→부지사→시장→시의장→도공】	
13:55~14:00	5	▶ 협약서 서명 및 기념촬영	